



#### 주최 · 주관

####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공익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과 민간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또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NGO·NPO(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곳, 시니어사회공헌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후원

#### 동그라미재단은,

‘모두에게 기회를’이라는 미션 아래 시니어와 주니어의 세대공감과 건강한 소통을 응원합니다.

세대공감시리즈

in  
종로구

# 동네 한 바퀴

결과 보고서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후원

 동그라미재단  
The Circle Foundation



# 목 차

## PART 1. 시작

|               |    |
|---------------|----|
| 사업배경 .....    | 07 |
| 사업목적 .....    | 09 |
| 프로그램 설계 ..... | 10 |

## PART 2. 운영과정

|              |    |
|--------------|----|
| 준비과정 .....   | 15 |
| (1) 개요       |    |
| (2) 홍보/모집    |    |
| 참가자 관련 ..... | 17 |
| (1) 현황       |    |
| (2) 특징       |    |
| 실행 .....     | 23 |
| (1) 1일차      |    |
| (2) 2일차      |    |
| (3) 실행 결과물   |    |
| (4) 사후 모임    |    |

## PART 3. 총평

|                   |    |
|-------------------|----|
| 참가자 평가 및 후기 ..... | 37 |
| 총평 및 제안 .....     | 52 |





PART 1

# 시작

사업배경

—

사업목적

—

프로그램 설계





## 사업배경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화두는 세대 간(inter-generation) 공존이다.”

-토레스 길 Fernando torres gil, 인류학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세대 사회, 즉 4세대 이상이 공존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는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인부양, 청년과 은퇴자의 취업 경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은 세대 간 공존이라는 시급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OECD 자료(2009)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8.2%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 지역 공동체의 해체,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한 세대 간 분리와 접촉 기회의 차단, 소통 부재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안해왔다. 2011년부터는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세대 간에 공유하기 위한 세대통합 사업<sup>1)</sup>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니어와 다른 세대 간 접촉 기회와 정보 부족이 세대 공감에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판단했으며, 세대 간 직접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1) 세대공감 시리즈로 동네한바퀴in성남, 사과(사랑에 빠진 과학)캠프 등 Generations Together 사업을 기획, 진행 중이다.

희망제작소는 세대공감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동네한바퀴in종로구’를 기획 실행하였다. 이미 2013년 ‘동네한바퀴in성남’으로 세대 간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기획은 이 사업은 시니어의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주니어가 친숙한 기술(스마트폰 활용 및 GIS)과 결합하는 커뮤니티 매핑<sup>2)</sup>을 통해 지역지도를 완성하도록 설계하였다.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지역을 매개로 이슈를 선정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자원 발견과 지도 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이루면서 세대 접촉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이라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세대공감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목적에 공감하는 동그라미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였다.

2) 커뮤니티 매핑은 참여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참여, 공유를 이행한다. 사람과 사람,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며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중 하나이다.



## 사업목적

### (1) 세대 공감 확산

- 일방적, 시혜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한 ‘세대공감’ 문화 확산
- 세대 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 확산

### (2) 지역 사회 참여 기회제공

-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진입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사회공익 활동의 다양화

### (3) 공동체성 회복

-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회복
-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으로서 공공성 확보



## 프로그램 설계

### (1) 대상 설정

- 시니어 - 과거 노인층과는 다르게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60% 이상 표하고 있는(퇴직자 NPO 욕구조사 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2007)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40~60 대를 참여 대상으로 선정
- 주니어 - 지역사회 문제나 세대공감 이슈에 무관심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 (한국의 베이비부머 대상자 중 5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이상 사용자가 16%밖에<sup>3)</sup> 되지 않기에 상호보완 역할 부여)  
단, 초등학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 커뮤니티 매핑

- 지리적 유사성과 소속감을 갖는 공동체가 공통 관심 이슈를 갖고 지리적 정보를 기록해 공유하는 활동
- 다른 두 세대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과 참여, 공유를 촉진

3)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서울대학교, 2010~2012

### (3) 추진일정



-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시니어와 주니어가 마을을 함께 탐색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견하는 경험을 나누며 세대 공감을 이룸
- 시간별 (2회/프로그램 시작 전과 마무리)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 및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영상으로 제작

### (4) 지역선정/ 종로구

- 서울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퇴직(예정)자의 지역사회 데뷔 기회 필요성 대두(종로구 거주 41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53% 차지. 종로구 구정현황, 2014)
- 서울시의 중심구로 북촌과 서촌 등 역사적 지역자원이 풍부하며 지리적 정보를 담아 지도를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

### (5) 추진일정

| 구 분            | 4월 | 5월 | 6월 | 7월 |
|----------------|----|----|----|----|
| 사전준비 / 참가자 모집  |    |    |    |    |
| 과정 운영          |    |    |    |    |
| 후속 모임 / 결과물 제작 |    |    |    |    |

### (6) 프로그램 기획안

| 구분            | 내 용                     |                            |                           |                                   |                                              | 평가                  |
|---------------|-------------------------|----------------------------|---------------------------|-----------------------------------|----------------------------------------------|---------------------|
| 1일차<br>(5/31) | 인터뷰<br>사전<br>세대인식<br>조사 | 워크숍<br>마음열기<br>&<br>마음먹기   | 강의<br>지역사회<br>'공동체'<br>이해 | 워크숍<br>팀빌딩<br>조별 역할<br>및<br>주제 선정 | 강의<br>차이를 축하하기:<br>세대 차이에 대한 이해<br>및 co-work | 평가<br>및<br>토론<br>시간 |
| 2일차<br>(6/01) | 몸풀기<br>아이스<br>브레이킹      | 강의<br>'커뮤니티<br>매핑'에<br>관하여 | 실습<br>조별 실습 및<br>미션 수행    |                                   | 워크숍<br>실습 내용<br>공유                           |                     |
|               |                         |                            |                           |                                   | 인터뷰<br>세대인식<br>변화 조사                         |                     |



PART 2

## 운영과정

### 준비과정

- (1) 개요
- (2) 홍보/모집

### 참가자 관련

- (1) 현황
- (2) 특징

### 실행

- (1) 1일차
- (2) 2일차
- (3) 실행 결과물
- (4) 사후 모임





## 준비과정

### (1) 개요

- 일정/ 5월 31일, 6월 1일(토, 일)
- 장소/ 종로구 마이크임팩트
- 참여대상

|          |                                                                                                                     |
|----------|---------------------------------------------------------------------------------------------------------------------|
| 시니어(1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에 거주하는 40~60대 시니어</li> <li>• 종로구에 근무하며, 사회참여 및 활동에 경험 있는 시니어</li> </ul> |
| 주니어(25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li> <li>• 종로구 거주 만 17~19세 청소년</li> </ul>                  |

- 시니어와 주니어의 비율을 1:1.5 이상으로 설정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었으며 종로구와 관계한 시니어와 주니어를 우선순위로 선발
- 참가비: 무료(참가비 전액 동그라미재단 지원)
- 프로그램 특징 및 특전
  - 프로젝트를 마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4시간)
  - 지역의 이슈를 담은 지도 제작 기회 제공(Mappler 이용)
  - 임완수 박사 특별 강연(미국 머해리 의과대 박사, 한국 커뮤니티 매핑 센터장)
  -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회참여가 가능한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구성

## (2) 홍보 모집

- 홍보 포스터, 브로셔 및 참고 영상 제작
- 주니어 - 종로구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 수련관, 관련 청소년 동아리 등에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안내 책자 전달
- 시니어 - 종로구 마을 커뮤니티 단체, NPO 관계자,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행복설계 아카데미’ 수료생을 통한 홍보



〈포스터〉



〈리플렛〉

- 영상 웹주소: <http://vimeo.com/92110500>  
(‘동네한바퀴in00’ 프로젝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에 진행한 ‘동네한바퀴in성남’ 프로젝트 전체 스케치 영상 편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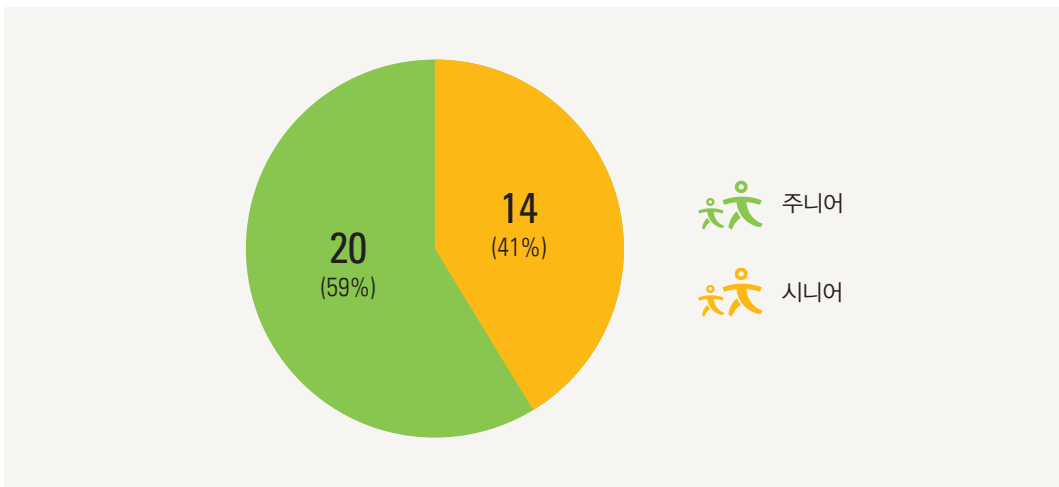


## 참가자 관련

### (1) 현황

#### 시니어/주니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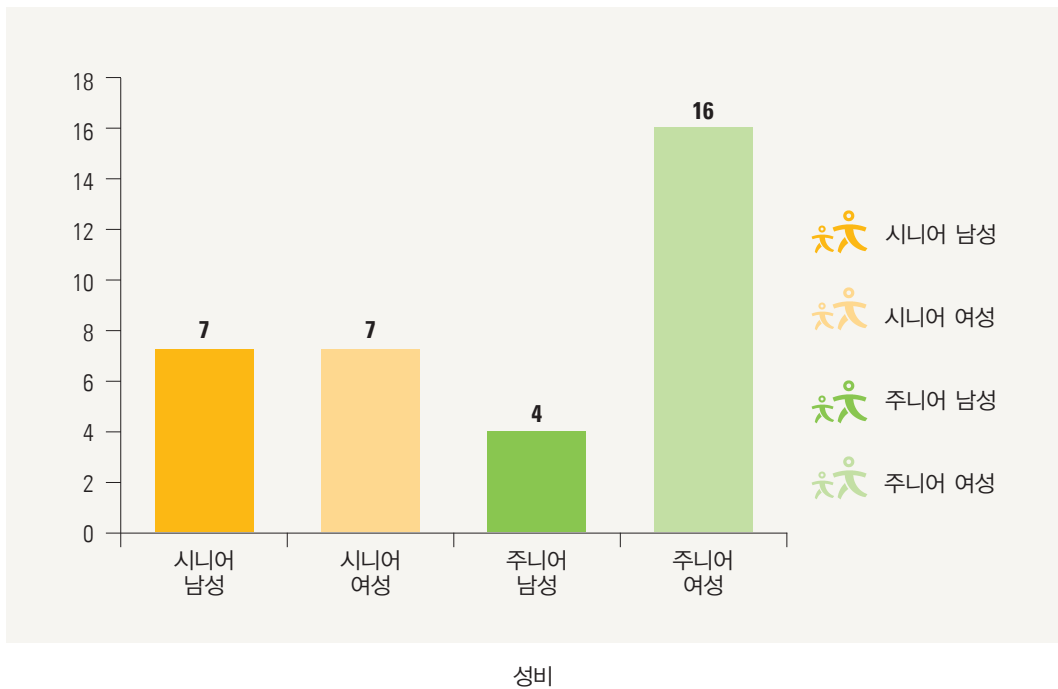
-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GIS실습 등)을 위해 한 팀당 시니어와 주니어의 비율을 2:3으로 구성



시니어/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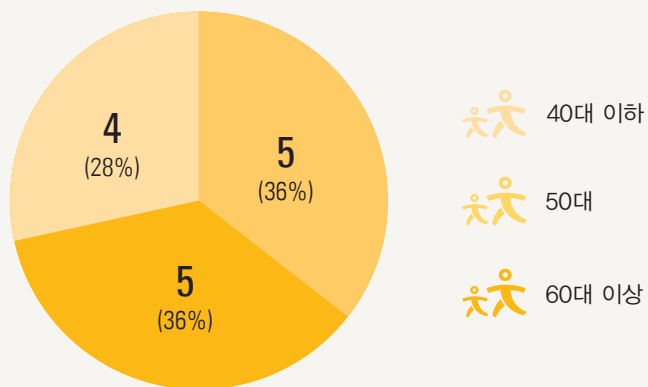
#### 시니어와 주니어의 남녀비율

- 시니어 남녀 비율 균등  
(일반적으로 지역 관련 사업에는 여성 참여자가 많으나 이번에는 성비가 균등)
- 주니어의 경우, 여자중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로 여성 참가자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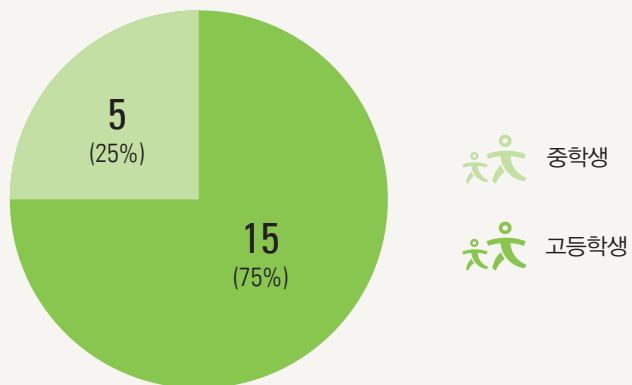


### 시니어와 주니어 연령대별 비율

- 주니어의 경우 학업 피로도가 낮은 중학생의 참여 의욕이 높고, ‘커뮤니티 매핑’ 콘텐츠를 중·고등학생이 모두 소화할 수 있어 만14~19세까지 대상자 확대
-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서 주니어 내에서도 연령별로 리더십이 생성되어 향후에도 주니어 대상자 폭을 넓힐 것을 제안
- 참가자 중 최연소자는 14세, 최고령자는 77세



시니어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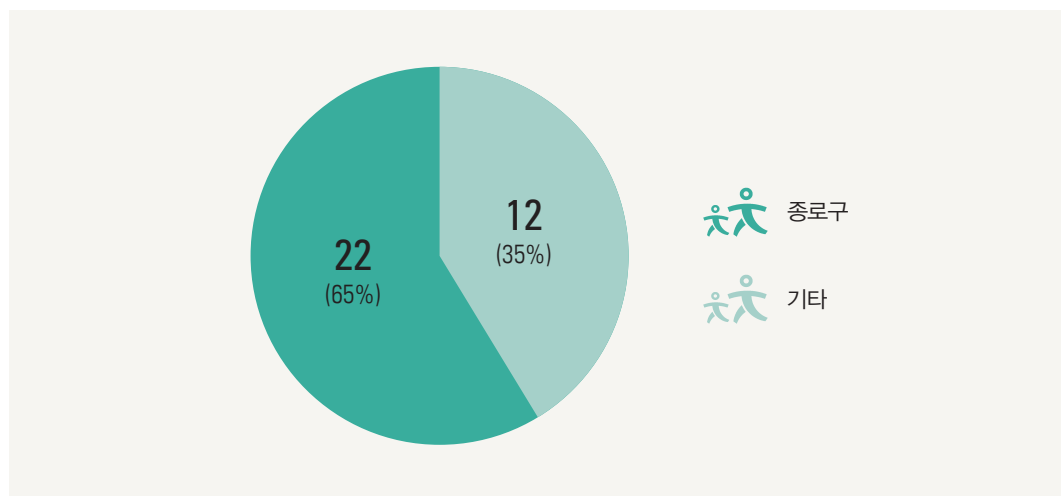


주니어 연령대

### 종로구 관련자 / 비관련자

(종로구 관련자 : 종로구 거주 또는 근무, 재학 중인 사람)

- 종로구 관련자를 우대 모집, 한 팀당 종로구 관련자를 한 명 이상씩 배치
- 커뮤니티 매핑을 직접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 참여(종로구 비관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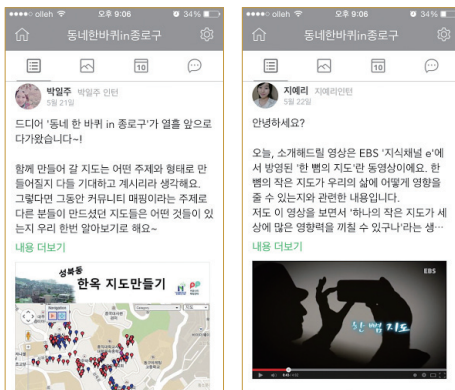
종로구 관련 여부

### (2) 특징

프로젝트 기간(2일)동안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 신청자 관리를 위한 장치를 두었으며 커뮤니티 매핑에 적합한 조원 구성을 위한 추가 작업 실시

## 사전 신청자 관리

- 사전 신청자의 참여 욕구를 높이고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니어도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밴드’를 구성해서 관리
-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 사전 신청자 총 43명 중 77%인 34명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 프로그램 참가비가 무료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참석율로 사전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의 중요성 확인



◀ 밴드를 통해 프로젝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 팀 구성

- 온라인을 통한 사전신청에서 조원 선정을 위한 기본 정보 수집
-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시니어를 각 조에 한 명 이상 배치해 조별로 지역의 스토리텔러 역할 부여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니어, 주니어 각 한 명 이상씩 배치해서 커뮤니티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구성
- 만들고 싶은 지도 주제의 유사성,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원 선정

- 가족 단위로 참여한 경우 한 조에 들어가지 않도록 분산해서 배치
- 모든 인원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팀의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역할 부여 (실행 1일차 내용 참조)

세대공감사업단

## 동네한바퀴

세대를 만나!  
지역을 탐색하다!  
커뮤니티를 발견하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하는 지역 탐색 프로젝트!  
커뮤니티 매핑(주민참여형 지도만들기)을 통해 세대를 잇고 지역을 찾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봄날, '동네 한 바퀴 in 중로구'에 당산을 초대합니다.

프로젝트 목표 및 특징

- 프로젝트 수료 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지역의 아슬을 담은 지도 제작(기법 제공 (Mapler 이용))
- 입원수 박사 특별 강연 (미국 아메리 의과대 박사,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사회참여 가능한 공교육 교육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개요

5/31(토) 9:30~17:30 시니어, 주니어와 만나다. 지역 커뮤니티의 이해, 주제산정 및 팀발령

주요일정

6/1(일) 9:30~17:30 시니어, 주니어와 만나다. 커뮤니티 매핑 현장 실습 및 공유

장소

마이크로일렉트릭 13층 (동작역 4번 출구) **오시는 길**

시니어(45명)

- 중로구 거주하는 40~60대 시니어
- 중로구 근무하여, 사회참여 및 활동에 열의 있는 시니어

주니어(25명)

- 중로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7~19세 청소년

참가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참가신청

5월 25일까지 희망자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허세나 연구원  
02-2031-2121 / doer2048@makehope.org

참고자료

동네한바퀴 in 중로구 영상

신청하기

중로구 시니어 스코프업의 신청하기

중로구 주니어 커뮤니티 매핑의 신청하기

주최·주관

세대공감사업단

후원

동로구지역개발사업단

동네한바퀴 in 중로구 시니어 신청서

세대공감사업단

## 동네한바퀴

세대를 만나!  
지역을 탐색하다!  
커뮤니티를 발견하다!

1. 이름 \*

2. 생년월일 \*

3. 성별 \*

4. 현재 거주지 주소 \*

5. 현재 직장명 주소 \*

6. 연락처(휴대폰 번호) \*

7. 신청하는 사유를 설명 \*

8. 기타(이전 프로젝트 참여 경험, 기타 활동 경력, 기타 신청 이유 등) \*

9.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행자 정보(성명, 나이, 직업 등) \*

10. 프로젝트 진행 동의 \*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신청서

동네한바퀴 in 중로구 주니어 신청서

세대공감사업단

## 동네한바퀴

세대를 만나!  
지역을 탐색하다!  
커뮤니티를 발견하다!

1. 이름 \*

2. 생년월일 \*

3. 성별 \*

4. 현재 거주지 주소 \*

5. 현재 직장명 주소 \*

6. 연락처(휴대폰 번호) \*

7. 신청하는 사유를 설명 \*

8. 기타(이전 프로젝트 참여 경험, 기타 활동 경력, 기타 신청 이유 등) \*

9. 동행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행자 정보(성명, 나이, 직업 등) \*

10. 프로젝트 진행 동의 \*

11.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니어 신청서



## 실행

### (1) 1일차

| 5.31(월) Race day1 |          |                                          |
|-------------------|----------|------------------------------------------|
| 09:30             | OT/인터뷰   | 인사말(스토리텔링 인터뷰 진행)                        |
| 10:00             | 아이스 브레이킹 | 몸풀기와 인사나누기                               |
| 11:00             | 강의       | 세대와 지역 잇는 '커뮤니티 발견'                      |
| 12:30             | 식사       | 점심식사                                     |
| 13:30             | 강의       | '커뮤니티 매핑'이 궁금하다!                         |
| 15:00             | 팀빌딩      | 시니어, 주니어 더하고, 나누기<br>(주제, 범례, 장소, 역할 선정) |
| 17:00             | 레이스 마무리  | 2회차 일정 안내                                |

### 몸풀기와 인사 나누기

- 세대 간에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스킨십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3Keywords를 작성해 짧은 시간에 1:1로 자기소개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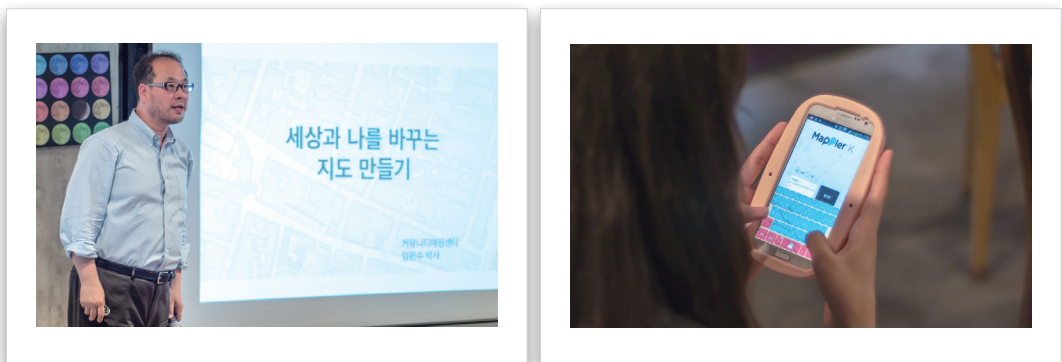
### 세대와 지역 잇는 '커뮤니티 발견'

-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사례 강의
- 공동체의 중요성과 세대 간의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해 '존중'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



### ‘커뮤니티 매핑’이 궁금하다!

- 커뮤니티 매핑센터 임완수 박사가 미국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이용해 커뮤니티 매핑을 실시했던 사례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매핑의 효용가치를 알려주는 특강
- ‘Mappler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소개



### 시니어와 주니어, 더하고(+) 나누기(÷)

- 팀빌딩 - 지도의 주제와 각 팀원의 역할 선정, 팀명과 팀 구호 만들기  
(각자 만들고 싶은 지도의 주제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제한된 시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지도의 주제를 토론을 통해 선정)
- 각 팀원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선정, 모든 팀원이 프로젝트 안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분담(조원이 4명일 경우 한 사람이 2가지 역할 담당)

- 길을 지배하는 자(길잡이)
- 맵을 지배하는 자(매플러 활용)
- 기록을 지배하는 자(사진 촬영 및 밴드 등록)
- T를 지배하는 자(활동 지원비 관리자)
- 시간을 지배하는 자(시간 체크)



## 팀빌딩\_주제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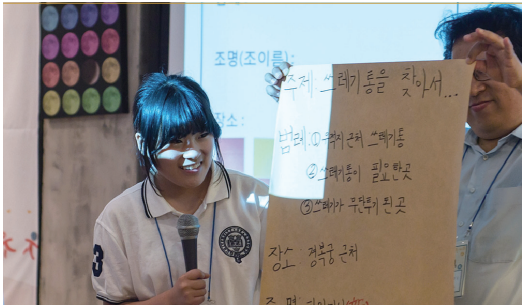
### 1조(타조)

주제 : 세대에 따라 운동하기 적합한 장소 지도



### 2조(종로 시간 탐험대)

주제 : 종로의 오래된 곳 지도



### 3조(타임머신)

주제 : 유적지 소화기와 쓰레기통을 찾아서



### 4조(잘먹는 우우리, 귀엽조)

주제 :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맛집 지도



### 5조(버블버블)

주제 : 서촌의 개인운영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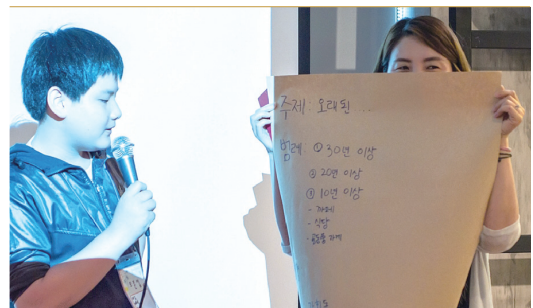
### 6조(다람쥐 매퍼~)

주제 : 쓰레기통 찾기



### 7조(2+3=소통)

주제 : 종로구에 있는 특색 있는 카페 지도



### 8조(뷰티판다)

주제 : 오래된 지역자원 찾기

#### \* 주제와 범례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점

- 이미 상업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주제의 지도 만들기는 지양한다.  
(ex/ 서촌의 맛집 지도, 부암동 병원지도 등)
  - 정해진 시간동안 걸어 다니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역 이슈들로 주제를 선정  
(ex/ '북촌의 재래시장' 이라고 주제를 선정하면 2시간 안에 걸어서 지리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지역 안에서도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교육장과 가까운 장소를 선정할 것
-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 조원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스텝은 퍼실리테이터(촉매자) 역할을 한다.

**(2) 2일차**

| 6.1(일) Race day2 |         |                                |
|------------------|---------|--------------------------------|
| 09:30            | 2회차 안내  | 주사위를 굴려라                       |
| 10:00            | 강의/워크숍  | Celebrate Difference!          |
| 12:00            | 식사      | 점심식사(미션 전달)                    |
| 13:00            | 현장실습    | 종로구 한 바퀴~                      |
| 15:00            | 실습공유    | 완성 지도 공유                       |
| 15:10            | 결과물 정리  | 이그나이트 준비(20초*15)               |
| 16:10            | 이그나이트   | 결과물 발표하기                       |
| 17:00            | 레이스 마무리 | 맺음말 및 수상팀 발표<br>(스토리텔링 인터뷰 진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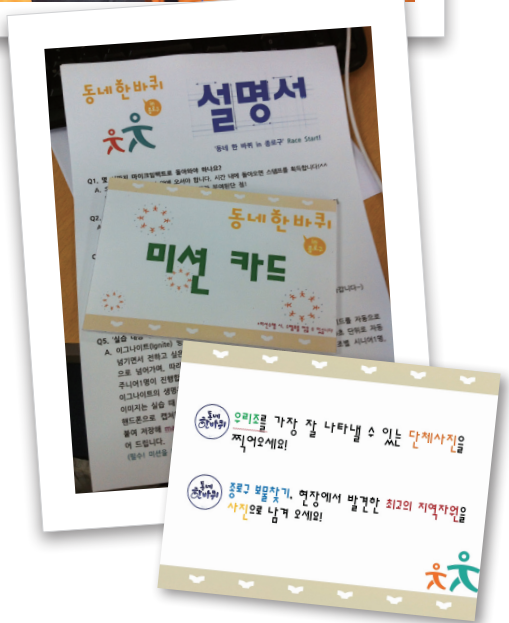
**Celebrate Difference!**

- 세대공감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진행 / DISC<sup>4)</sup> 관계 전략을 통해 각자의 성향에 대해 알아보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 제시. 워크숍은 각 팀원이 서로를 파악하고 원활한 팀빌딩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

4) DISC는 사람의 행동유형을 분석하는 심리분석 도구로 인간의 행동 특성을 4가지 모델로 설명하는 테스트 기법이다.

###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 커뮤니티 매핑 실시 / 실습 2시간에 맞추어 매핑이 이루어지도록 기획했으며, 간단한 미션을 부여해서 매핑을 하면서 팀워크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
- 현장 실습 시간 동안 스탬프들은 온라인에 업데이트 되는 각 팀들의 사진과 매플러 등록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활동내용 모니터링



## 이그나이트 파티

- 결과 발표 / 2시간 동안 완성한 지도(결과물)를 공유하고 조별로 커뮤니티 매핑 과정과 느낀 점을 이그나이트 방식으로 발표
- 결과물을 15장의 슬라이드로 제작하고 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시간을 20초로 제한해서 발표 진행.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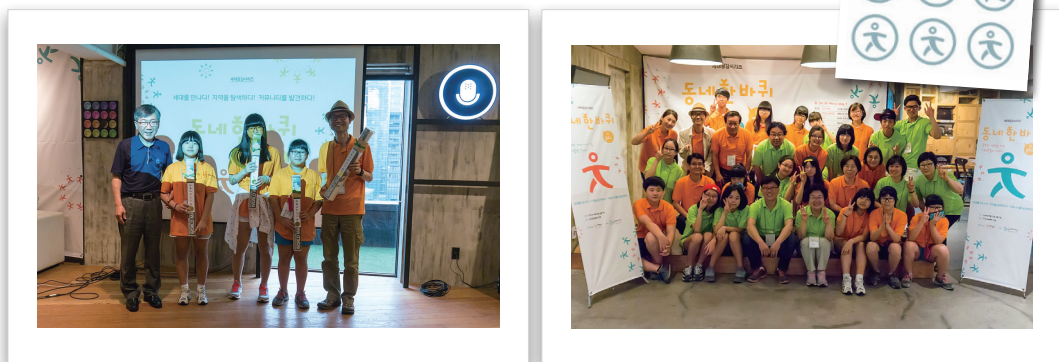
### 이그나이트란

이그나이트(Ignite)는 20장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넘기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발표하는 이벤트성 행사를 말한다. 비슷한 행사로 페차쿠차(PechaKucha)가 있는데 차이라면, 이그나이트는 20장의 슬라이드를 15초 단위로 넘겨서 총 5분에 발표를 끝내는 것이고, 페차쿠차는 20장의 슬라이드를 20초 단위로 넘겨서 총 6분 40초에 발표를 끝낸다. ('더 체인지'에서 발췌)



### 수상팀 선발

- 프로젝트 진행 단계마다 수행정도에 따라 공식 스탬프 발급
- 스탬프를 조별로 합산해 커뮤니티 빌더상, 세대공감상을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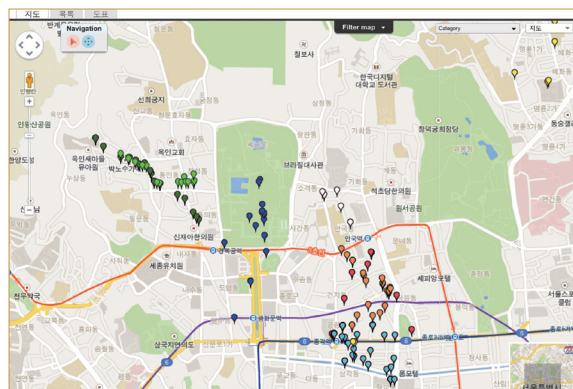


### (3) 실행 결과물-완성지도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가자들은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지역자원 총 169개의 지리정보를 담은 공동체 지도를 완성하였다. 이 결과물은 향후 ‘매플러K(커뮤니티 매핑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공유할 계획이며 현재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완성 지도 URL주소

<http://www.mapplerk.com/town1060/>



#### (4) 사후 모임

##### 1) 목적

프로젝트 평가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 공유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 커뮤니티 강화

##### 2) 개요

- 일시 : 2014. 7. 6(일) 오후 2:00~6:00
- 장소 : 희망제작소, 서촌
- 대상자 : ‘동네한바퀴in종로구’ 참여자

##### 3) 내용

- ‘동네한바퀴in종로구’ 그 후 -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움직임과 평가지에 나왔던 문의에 대한 정보 제공
- 주니어와 시니어의 속사정 - 두 세대 간 인식 변화 과정을 정리해서 공유
- [워크숍]전국~ 동네 자랑 - 내가 사는 마을의 지도를 그려 지역 자원을 살피는 시간 마련
- 서촌 보물찾기 - 프로젝트 참가자이자 골목 해설사인 김정민 님의 재능기부로 서촌 일대를 탐방하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네트워크 강화

##### 4) 자체 활동 확산

- 참가자들이 성북구에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매핑 실시
- 지속적으로 지리적 정보를 등록해 ‘공동체 지도’를 제작할 계획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light beige color, decorated with numerous white, stylized bird-like icons. These icons are scattered across the page, with a higher concentration at the top and bottom edges. Each icon consists of a simple circular head, a curved beak, and two curved wings, giving them a sense of motion as if they are flying or dancing.

**PART 3**

## 총평

참가자 평가 및 후기  
—  
총평 및 제안





## 참가자 평가 및 후기

이 보고서의 평가는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한 후기 및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1)서면인터뷰

#### 시니어 지역사회 참여의 다양한 기회 제공

이번 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대해 시니어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욕구를 나타냈다. 우선 지역의 스토리텔러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공헌의 의지를 보였다. 또 다른 참여동기는 일상적으로 다른 세대와 접촉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청소년과 접촉하여도 만남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고자 가족, 학교(동아리) 단위도 참가하였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 서울의 1번지 종로구에서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도에 스토리텔러가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여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막 40을 넘겼고 남매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귀를 기울여 준다면 청소년들이 가지는 여러 문제를 공감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참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활동이 하고 싶은지 듣고 싶고 실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참여하면서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 지역 자원 재발견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확대

참가자 후기 및 설문조사를 보면 프로젝트 참가 이전에는 참가자 대부분이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프로젝트 참가 후(지역 탐색, 지역자원 조사, 실습 등) 참가자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확연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알지 못했던 지역문화를 알게 되어 새로웠다.”

“이전과 달리 지역과 세대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알려고 하는 나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북촌 한옥 마을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세히 방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단순히 관광지로 바라보았는데,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그 곳의 역사를 알고 둘러보니 그 곳이 ‘동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세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젝트 시작 전과 프로젝트 완료 후 두 차례에 걸쳐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세대 모두에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니어는 시니어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했는데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전문가로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참여한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시니어 인터뷰

처음  
(5/31)

“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어요. 사춘기라는 선입관이 '대화가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통을 해볼 기회도 없어 아쉬웠습니다. ”

“ 경제적 여건은 예전보다 기회가 확대되는 등 좋아져서 부러운 면도 있지만 돈, 학벌이 예전보다 훨씬 큰 가치로 여겨지고 입시에 시달리는 환경이 안타깝다. ”

“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통해서 느꼈던 바는, 관심의 폭이 넓지 않다. ”

마지막  
(6/01)

“ 2일간이지만 여러 주니어와 융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끼리 자주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번뜩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 함께 활동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과제 수행에 적극적이어서 좋았음. ”

“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중3 딸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

• 주니어 인터뷰

처음  
(5/31)

“ 고리타분하다. 과거의 권위에 집착한다. 지하철 자리를 빼앗는다. ”

“ 저보다 많은 경험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 시니어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지나가는 분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

마지막  
(6/01)

“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시니어랑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친구하고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순응하게 되고 제 말에 따라주시는 시니어 분들 때문에 아주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

“ 시니어 분들이 남을 위한 배려를 잘해주신다. 스마트폰 없이도 길을 잘 찾으시며 많은 일들을 하신다. 주니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주니어 또래에서는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폭이 넓다. ”

“ 시니어는 주니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주고 주니어는 시니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서로서로 도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기뻐고, 아빠 엄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이해한 것 같다. ”

다음은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과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참가자의 후기 전문이다.

#### 후기1\_시니어

### 동네를 걸으며 ‘동네’를 찾았다

정미영 한성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우연한 기회에 커뮤니티 매핑을 접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안전 지도를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서였다. 막연하게 그런 수업이 있구나 하였고, 잠깐의 설명만으로 알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올해 초에 커뮤니티 매핑 설명회를 다녀오고 나서 학교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밖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일이다. 이리 저리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희망제작소의 ‘동네한바퀴in종로구’를 알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그 중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소속된 ‘건강교실’은 음악 줄넘기를 통한 신체 단련을 하며, 줄넘기 공연과,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을 시도하고 있는 동아리이다. 줄넘기와 봉사 등을 진행하며 올해로 5년차 아이들과 놀고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커뮤니티 매핑을 소개하고 싶은 순간에 커뮤니티 매핑을 소개하고 진행하는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매우 반가운 프로그램이었다. 25명의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소개하고, 참가를 독려하였는데, 사정이 있는 친구들을 빼고 총 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항상 아이들과 놀다 보니 내가 '40-60대'에 포함 되는 시니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시니어'로 신청하고 아이들과 함께 2일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한가한 토요일 아침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과 만나 종로 2가의 한 건물 13층에 도착하였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그 곳은 아이들의 시각을 넓혀 주는 시작점이 되었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주시는 스태프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 이틀 동안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도 소화시키는 중딩들의 위장을 꼭 채워준 맛난 샌드위치와 편안한 소파,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하는 '혈수' 씨까지 소소한 곳에 녹아있는 배려심에 감동했다. 9명 모두 각 8개의 조로 나뉘는데, 혼자 있게 되었다고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내 각 조의 분위기에 휩쓸려들었다. 재미를 느끼게 되니 혼자라서 아쉽다는 아이는 없었다.

내가 속한 팀도 시니어 2명, 주니어 3명이 한 팀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주니어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점쳐 보기도 했다. 첫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차츰 서로의 어색함을 내려놓았다. 우리 아이들이 SNS에서도 엄청 자랑을 한 점심을 먹고, 놀고, 나누다 보니 어느 새 하루가 지나갔다.

오후에는 매핑의 창시자 임완수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을 눈앞에서 뵈고, 박사님의 명성을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라는 소회를 내놓기도 했다.

첫날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한가득 실려 있었다.

둘째 날, 도착해서 예쁜 주황, 초록의 티셔츠를 나눠 입고 자리에 앉으니 더욱 조원들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우리 조뿐 아니라, 다른 조의 주니어들과 시니어들의 얼굴도 가까이 느껴졌다. 조원들끼리 역할을 나누고 점심 식사 후에 드디어 매핑을 시작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 곳의 장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 조는 시니어 한 분께서 살고 계시는 북촌 한옥 마을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촌 한옥 마을을 알고는 있었으나 자세히 방문을 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관광지로만 바라보았는데,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그 곳의 역사를 알고 바라보니 그 곳이 ‘동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짧은 두 시간이 지나고 북촌을 빠져 나오면서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 다 보지 못한 곳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더운 날씨에 다들 힘들었지만, 하나라도 더 보고, 동네 주민들의 생각과 소개를 듣게 되어 즐겁고, 의미 깊었다.

돌아와서 우리 조가 가지 못했던 다른 종로의 ‘동네’ 얘기를 들었다. 아, 저 동네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저 조는 저런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았구나 등등. 각 조의 매핑 결과를 나누면서 ‘동네한바퀴in종로구’의 시간이 다 지나갔다.

커뮤니티 매핑을 알고, 아이들과 진행하고, 지도를 가지고 소통하고, 융합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짧은 2일간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그 동네를 떠나 각자의 동네로 돌아왔다. 하지만 SNS에서 ‘동네한바퀴in종로구’라는 ‘동네’가 만들어져 그 때 그 시간을 함께 한 주민들의 소통은 ‘동네’에서 지속되고 있다. ‘희망’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구현할 수 있는 맛을 보여 준 ‘희망제작소’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40년도 더 전에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나는 어느 시대, 서울의 한 지역에서 ‘동네’를 잃어버렸다. 내게 ‘동네한바퀴in종로구’의 경험은 ‘동네-커뮤니티’를 다시 맛보게 하는 기회였다. 커뮤니티 매핑을 하다 보니 그 과거의 ‘동네’와 같은 이 ‘동네’를 만났고 애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 애정을 따라가다 보면 ‘동네’를 모두가 살아가기 행복한 곳으로 가꾸는 행동을 하게 된다.

나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뗄 것인지 고민한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을 ‘섬겨’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전한다.



## 후기2\_주니어

### 커뮤니티 매핑의 매력에 빠지다

박한빛 중학생

이번 ‘동네한바퀴in종로구’ 프로그램은 10대부터 60대의 세대가 모여 커뮤니티 매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은 주니어 어른은 시니어였는데 우리 조 시니어는 포근해 보이는 인상의 40대 아저씨였다. 조원들과 인사하는 단계가 끝나고 강의를 들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웠다.

사실 나도 같이 하면 뜻대로 되지 않아 혼자 해결하기를 많이 했다. 그것에 실패를 겪은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는데 자신이 아무리 뛰어나게 해도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면서부터는 모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강의를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은 임완수 박사님의 강의였는데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에서 활동하면서 이름만 들었던, 정말 먼 곳의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만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마치 연예인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매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배웠다. 여기서 첫 번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팀빌딩과 매핑 지역, 주제를 정했는데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많았다. 하지만 시니어 분께서 주니어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

었다. 첫째 날을 마치고 임완수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정말 친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사람의 인상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동아리인 음악 줄넘기와 같이 참여한 것인데 흔쾌히 우리들의 어드바이저가 되어주셨다. 순간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박사님과 아쉬운 작별을 했다.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매핑을 시작했다. 우리 조는 경복궁의 쓰레기통과 소화시설을 찾았다. 경복궁에는 쓰레기통도 많았지만 소화시설이 더 많았다. 곳곳에 기본적으로 소화기 4개는 필수로 있었다. 활동을 모두 마치고 다시 모여 ‘이그나이트 파티’를 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진행했다.

이 활동은 매핑을 하는 사진을 모아 내용과 느낀 점을 설명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흔치 않아 많이 떨어져서 내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게 아직도 후회가 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에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 매핑을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면서 두 번째 매핑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길거리에 사소한 것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알려고 하는 나 스스로가 조금은 성장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후기3\_주니어

##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걸은 길

정하현 고등학생

열아홉의 나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오랫동안 길을 헤매었다. 앞으로 어른으로서 홀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마냥 천진한 아이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주니어와 시니어 그 틈바구니에서 잠시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태생부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탓에 낯선 사람과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는 내가 큰마음 먹고 참여하게 된 ‘동네한바퀴in종로구’ (이하 동네 한 바퀴)가 바로 그것이다. 이틀에 걸쳐 16시간 동안 동네 한 바퀴에서 함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웃어주고, 손뼉 쳐주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주니어와 시니어 두 세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네 한 바퀴가 끝나고도 그 여운은 계속됐고, 한 달 후쯤인 7월 6일 후속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시험기간이라 고민되긴 했지만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던 주니어와 시니어들을 다시 만나고자 오산시에서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희망제작소를 찾았다. 희망제작소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듣고 ‘전국 동네 자랑~’ 워크숍을 가졌다. 각자 살고 있는 동네 지도를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의 장점과 희망하는 점들을 발표했다. 행사 때 특강을 해주셨던 임완수 박사님께 미국의 마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처음엔 잘 떠올리지 못했던 주니어 들도 찬찬히 지도를 채워가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동네 한 바퀴에 참여했던 김정민 선생님의 골목길 해설을 들으며 서촌탐방을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향한 곳은 운동주 문학관이다. 문학, 그 중에서도 시를 전공하고 있는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왔던 곳이었다. 운동주 시인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시인의 평론을 쓰거나, 연구 과제 때문에 또는 가끔 시가 나를 옥죄어서 시를 쓰는 일이 힘들 때, 내가 지니고 있는 문학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혼자 찾아와서 충전하고 가던 곳이었다.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언덕 위로 부는 바람은 시원했고, 또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도 무척 아름다웠다. 그 공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또 이렇게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운동주 시인을 공유하는구나, 오랫동안 그의 시를 알고 지내며 그 시의 감성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던 시니어들과 교과서에서 배운 시인과 시라며 반가워하는 주니어들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에 새겨진 서시를 읊는 사람들의 목소리, 가늘고, 굵고, 낭랑한, 장난스럽기도 하고 진지하기도 한 목소리가 한데 합쳐져 여름날의 바람을 타고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왕산 자락이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연초록색 나뭇잎들과 시원한 그늘을 가진 산을 올랐던 건 처음인 것 같다. 마음이 급한 시니어들은 앞서 가고 주니어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뒤에서 따라오는데 나는 그 사이를 걸으면서 따뜻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다. 걸음이 빠른 시니어들이 멈춰서 뒤돌아보며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과 가파른 계단을 뛰어 빠르게 뒤쫓는 주니어들의 모습, 미끄

럽고 바위가 많은 산길에서는 서로 손을 잡아주고, 밀어주고, 물도 나눠 마시면서 혼자 아니라 함께, 같이 길을 가려는 모습이 예쁘게 보였다. 아직 멀었냐고 묻는 지친 사람들에게 “거의 다 왔어”라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우리는 힘들지만 뿌듯하게 산을 내려왔다.

나는 지금껏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손을 뺀 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게 아닌가 싶다. 산길을 오르면서 내 앞에 먼저 갔을지 모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말을 걸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먼저 가는 것이나 빨리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웃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서촌 골목을 걸었다. 높은 건물과 빌딩만 보다가 낮은 지붕과 한옥의 형태로 남아 있는 집들을 오랜만에 마주했다. 골목 곳곳에 얹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젠 볼 수 없지만 시니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옛 서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꼭 이웃의 낮은 담장을 넘어보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게 골목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뜨거운 햇빛을 피해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서 느릿하게 걸었다. 인상 깊었던 곳은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이 있던 자리였는데, 아쉽게도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터에 살고 있었다. 나는 시인이 머물렀던 곳이 이렇게 허술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 허무해서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서울이 발전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사라진 것 같은데, 동네가 발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나의 안식처가 되어 준 시는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경험과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다. 동네 한 바퀴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함께 걸으면서 보았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아이와 어른 사이에서 맴돌고 쭈뼛거리곤 했던 시간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길은 얼마나 멀까. 두렵고 막막한 적이 많았는데,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끌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온전히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앞으로 내가 만나야 할 길들과 사람들. 앞선 사람들과 뒤쳐진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싶다.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듣고, 걸었다. 열심히 그린 지도를 들고 동네 자량을 하던 모습, 우리를 감싸 안은 이 계절의 날씨, 나뭇잎이 바람에 뒤척이는 소리, 함께 걸으며 지나친 건물들의 지붕, 우리가 함께한 사소한 이야기들이 어느새 나의 시가 되었다. 나의 시가 되어준 동네 한 바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총평 및 제안

세대공감 시리즈 ‘동네한바퀴in종로구’는 주니어(40~60대)와 시니어(14~19세)가 만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기획했다. 각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대공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1) 지역 자원 재발견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확대 관련

참가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에 따르면, 종로구 거주자뿐 아니라 비관계자 또한 지역자원을 새롭게 발견하는 커뮤니티 매핑 실습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니어뿐 아니라 주니어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비관계자의 경우 종로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지역의 이슈를 발견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지역단체의 협조가 있다면 좀 더 지역에 적합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련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와 주니어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실제 접촉이 인식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 볼 수 있었고, 단순한 접촉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 같은 질적인 접촉이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단위의 인식 변화가 가족 내 세대 갈등의 해결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프로그

램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세대공감 프로그램에서는 단순 접촉이 아닌 질적 접촉을 더욱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그럴 경우 이 프로그램처럼 이를 진행으로도 상당한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질적 접촉이 보장될 경우 이후에도 후속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대에 꾸준히 제공해서 세대 간 접촉의 기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공감시리즈

# 동네 한바퀴

## 결과 보고서

in  
종로구

발행처 희망제작소

발행일 2014년 8월 14일

기 획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평창동, 비전빌딩 2-4층) 110-847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전 화 02-3210-0909

팩 스 02-3210-0126

후 원 동그라미재단 [www.thecircle.or.kr](http://www.thecircle.or.kr)